

냉전 · 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 관계 상관성 분석

이 준 희 (Lee, June-hee) *

(E-mail : victory9100@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11년 6월 29일

논문심사일 : 20011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11년 8월 13일

* 학위취득대학 : 경희대학교
현직: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수석책임교수

냉전·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 관계 상관성 분석

<국문요약>

이 논문은 신년사 분석을 통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대남한 인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탈냉전으로 전환되면서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북한 변화가능성을 진단 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관계가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냉전시대>는 미·소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어떠한 인식(긍정/부정)이 형성되었는가와 무관하게 부정관계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냉전시대에는 긍정인식이 커지면 부정관계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인식이 커지면 부정관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냉전시대는 긍정인식·긍정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인식과 부정관계 모두 냉전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 특색이다.

탈냉전시대에 대 남한 정부에 대해 긍정인식·긍정관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남 공세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긍정인식·긍정관계의 상관관계도 냉전시대에는 긍정인식이 증가하면 긍정관계도 늘어난 반면, 탈냉전시대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부정인식·부정관계는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공히 부정인식이 증가하면 부정관계가 늘어나는데 탈냉전시대에 증가폭(냉전 0.114→탈냉전 0.303)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탈냉전시기에는 냉전보다 부정관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냉전 0.93 → 탈냉전 4.1)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 → 김정일로 교체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대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는 시대별(냉전/탈냉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따른 4개의 연구 과제를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T-검정을 통한 통계분석 결과 긍정·부정인식은 냉전/탈냉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부정관계는 냉전/탈냉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관계의 상관관계 분석은 긍정·부정 인식변화와 부정관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정인식·부정관계는 냉전/탈냉전 공히 부정인식이 증가하면 부정관계가 늘어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냉전시대보다는 탈냉전시대에 긍정·부정인식, 긍정·부정관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인식·긍정관계뿐만 아니라 부정관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북한의 이중성을 엿 볼 수 있다.

[주제어] 냉전, 탈냉전, 긍정인식, 부정인식, 긍정관계, 부정관계

I. 서 론

1. 연구목적

현재 동북아는 오래전에 탈냉전 시대에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는 불안정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냉전 종식 후에도 동북아지역은 경제적 관점 뿐 만아니라 군사적 관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의 군사비는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1조 5,310억 달러나 된다(Sipri 2010).

이것은 냉전시기 최고 수준을 능가하여,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27% 수준으로 추산되고 2008년 대비 약 59% 증가한 것이다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http://demilitarize.org>.> 인터넷 자료 중 일부임). 미국이 대략 2020년까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에 도전할 경쟁자 등장 가능성이 낮을(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2004,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이 급부상하여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Stephen J. Flanagan and A. Shear 2007, 4-5).

중국은 과거의 방어적 태세에서 벗어나 적극방어와 자위적 핵전력 강화를 추구하여 공세적 태세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군현대화와 함께 지난 10년간 17%의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강대국으로서의 보통국가화를 향해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북한사회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동토의 왕국이며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빙하지대'라는 표현처럼 극도로 폐쇄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장성민 2009, 192).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인하여 남북관계도 획기적인 변화의 이정표가 마련되는 듯이 보였지만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미·중·북 3자회담('03.4)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1,2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북한 해빙의 기대는 무산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사건('10.3.26)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10.11.23)을 발생되어 남북관계는 악화 상태에 놓이게 되고 교류·협력 분야가 정체 또는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국방대학교 2010). 최근 북한은 잇따른 도발책동에 대한 사과조차도 외면한 채 경제난과 식량난 등의 내부사정이 다급한 나머지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등 북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만 진정

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안보문제연구소 2011, 58-59). 북한은 경제난의 지속, 김정은 승계체제 구축과정의 내부 권력 갈등 가능성, 북한 주민들의 민심동요 등의 내부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의지가 회의적인 상황이다(조민 2008, 11).

이 논문은 신년사 분석을 통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대남한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탈냉전으로 전환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북한 변화가능성을 진단 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남한을 지칭하는 긍정·부정 용어사용의 빈도를 연도별 그래프로 나타내어 이것을 인식변화로 보았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가치중립적인 용어사용을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적대적 의미의 비화된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종의 ‘국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인데 양적 변화이다. 결과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용어는 북한 현실에 있어서 긍정적 용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대 남한 호칭의 변화와 연도별 빈도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 남북관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남북관계(「남북관계 55년사」(북한문제연구소 2001)가 변화하면 신년사도 변화(연도별 긍정·부정 빈도)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대별(냉전·탈냉전)로 살펴보면서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시대별(냉전·탈냉전)로 구분하여 차이를 규명하면서 남북관계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관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남한 인식과 실제 남북관계(긍정관계/대남 공세적인 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인식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관성을 규명해봄으로써 앞으로 신년사의 변화추이에 따른 탈냉전시대의 남북관계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신년사 내용분석을 통해 신년사의 변화(대 남한정부 지칭용어 사용빈도 횡수)로부터 탈냉전시대의 인식변화를 유추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추이를 예측해내는 과학적 분석틀을 제공하고 「북한 신년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북한이 극도로 폐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얻은 자료라도 신뢰와 객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실상을 반영하기보다는 대내외 선전을 위한 것인 경우가 많다(이은숙 1989, 303-304) 즉 일명 ‘하더라’가 북한사회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 연구에서 자료의 실제 파악이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 것이 커다란 난제인데, 이러한 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그 외 정기간행물의 개방이다(이태건·권장희 외 2003, 19). 신년사가 대내·외 선전용이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일정한 형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매년 연속적으로 분석한다면 그 속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볼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통일부와 내외통신사에서 북한의 동향을 일일, 주간 단위로 제공해 주고 있어 북한연구의 폐쇄성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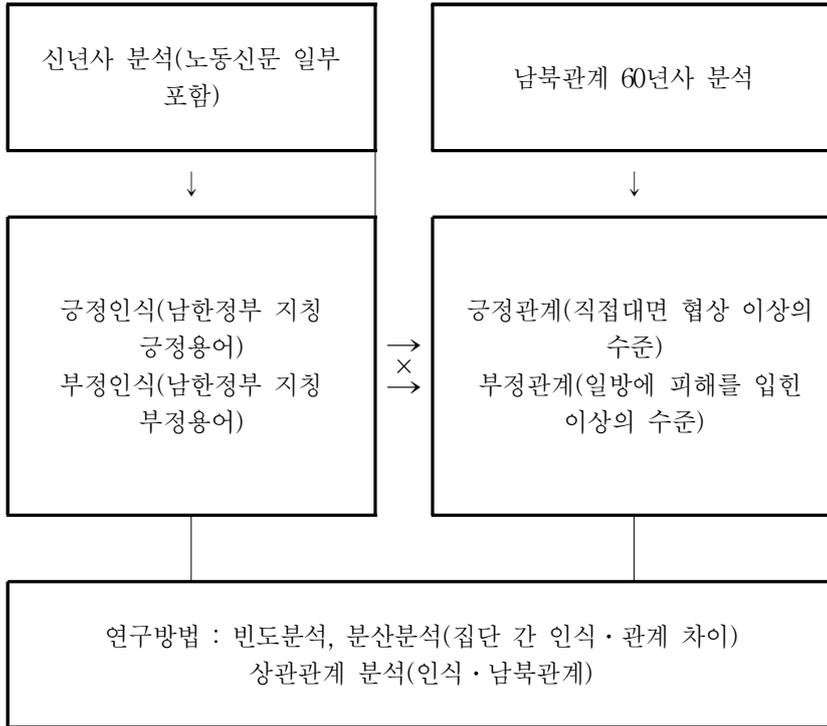
료 확보의 제약성이 극복되고 있다(육군사관학교 2003, 13).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황과 약은 물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북한연구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이다(송중환 2002, 317).

따라서 이 논문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적인 북한연구를 시도하고자 공식적인 자료인 「신년사」를 분석하여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대남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 대남 인식과 남북관계 변화의 개연성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북한의 대 남한 정부(정권)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는 지칭용어 사용의 변화, 연도별 지칭용어의 빈도변화, 북한 신년사 문장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북한 신년사 분석 결과로 대 남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신년사(공동사설)를 전수 분석하였다. 또한, 긍정·부정적인 남북관계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문제연구소에서 2001년도 발행된 「남북관계 55년사」책자를 참조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통일부 홈페이지의 「통일백서」부록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참조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문헌(신년사 즉 공동사설)은 일반자료로 분류되어 접근이 용이하였다. 즉, 「북한 신년사」는 1차 문헌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매년 유사한 내용을 유사한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북한 신년사」 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면 북한의 대 남한 정부인식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이와 같은 문헌연구를 포함하는 본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 1> 변수선정



이 논문은 표본선정에 따른 오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전수문헌 분석 방식을 택하였다. 물론 전수분석도 측정 과정상의 오류(measurement error)¹⁾는 발생 가능하다. 만일 북한의 대남 호전성을 알기 위해서는 매월 1회씩 노동신문 사설만 분석하여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를 체계적으로 알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전수분석에 의한 결과 치를 연결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앞서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매년 발표

1) 전수분석이므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측정 상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대 남한 정부 지칭용어를 긍정·부정 인식으로 분류하는 과정상에서,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관계와 공세적인 부정관계로 분류하는 과정상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되는 신년사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변화추이를 예측해 보고자 함에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신년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다음의 가설로 구체화 될 수 있다. (가)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는 시대별(냉전/탈냉전시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냉전과 탈냉전의 시대구분은²⁾ 곧 국제체제의 구분을 의미한다. 즉 양극체제(bi-polar system)의 붕괴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uni-polar system)의 전개는 탈냉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제체제의 변화는 남한과 북한 모두의 대외정책을 변화시켰다. 특히 노태우 정권에 시행된 이른바 “북방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북한의 맹방을 남한과 연결되게 하여, 남북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와 같이 변화된 국제체제에서 북한의 대남 인식은 일정부분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국제적인 면에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John Erickson 1999, 114), 북한의 대남 인식과 남북관계는 시대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현실성은 더욱 커진다. 북한의 대 남한 정부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남한정부를 지칭하는 용어를 긍정인식(=가치중립적인

2) 1980년대 중반 소련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소련 국민의 생활수준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뒤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소련 사회 경제의 비효율성이 눈에 띄게 심화되어 더 이상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었다. 그런데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각국에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국내에서 공산주의를 제외한 여타 사상은 탄압을 받았으며 국민들은 세계문화 흐름과 동떨어져 있었다. 인민을 지도해야 할 당과 경제 노멘클라투라(특권 관료층)는 부정부패에 심하게 물들어 사회악으로 등장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1985년 늙고 병약한 체르넨코 공산당서기장이 사망한 후 개방과 개혁을 앞세웠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미국과 소련이 화해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몰락하는 이데올로기 붕괴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1986년 이후를 편의상 탈냉전시대로 구분하였다. 한편, 탈냉전시대인 1987년부터 긍정적인 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1986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시작된 개방(페레스트로이카), 개혁(글라스노스트)의 신사고 정책이 동구권의 탈 공산주의로 이어지면서 더욱 두드러졌다(서대숙 2001, 361).

용어)과 부정인식(비우호적 의미의 용어)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관은 일종의 국시이다. 따라서 중립적 용어사용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 현실에 있어 '긍정적 방향'의 변화라 볼 수 있다. 용어표현을 긍정, 부정이나를 구분하는 데는 버디(Buddy)의 호의적 비호의적 개념정의와³⁾ 신명순의 「로동신문」이 사용하고 있는 韓國국가지도자 지칭 용어분석 내용⁴⁾ 중 남한정부 지칭 용어횟수 비교를 <표 1>의 내용과 같이 참고하였다.

한편, 북한의 대 남한 정부(정권)를 지칭하는 용어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문사회분야 장교 15명을 대상으로 중립과 부정으로 분류하는 용어분류조사를 실시하여 총 15명 중 11명(비율적으로 73%) 이상 선택을 받은 57개 단어를 <표 2>를 중심으로 부정·긍정 용어를 중심으로 양분하였다. 용어분류조사 결과는 앞서 신명순의 남한정부 지칭 용어분류와 거의 일치하였다. 정권별로 긍정(가치중립용어)인식과 부정인식으로 나누어 빈도를 합산하고 그 분포의 변화를 인식변화로 보았다. 이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분석으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긍정·부정인식 지수그래프 연결하여 변화 경향을 인식변화로 보았다.

3) 호의적 : 사회적 통합과 협조, 그리고 정치·경제적 안정과 힘을 반영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협조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며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표현, 비호의적 : 사회적 갈등, 해체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과 허약성을 반영한다. 중도적(neutral) : 호의적, 비호의적 내용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중도적인 것을 측정(Richard W. Budd, Robert K. Theory and Lewis 1971, 50).

4) 신명순의 분류방식 참고 : 「로동신문」이 사용하는 79종류의 한국정부 지칭 중 중립적인 용어 한국사회에서 북한정부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남조선 당국, 현 정권, 로태우정권, 서울정권, 이남당국자)등으로 구분, 적대적 용어는 한국정부가 합법적인 국가가 아니며 미국의 괴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괴뢰, 일당, 도당, 앞잡이, 통치배, 무리, 집단, 적대 의미의 강조는 접두어로 파쇼 군부, 독재 등을 쓰며 용어로는 강패, 반역, 백정, 살인마 등의 용어로 분류하고 있다(신명순 외 1992, 209-210).

<표 1> 「로동신문」이 사용한 남한정부 지칭 용어횟수 비교

구분	1989년 9월	1990년 9월	구분	1989년 9월	1990년 9월
중립적 용어			적대적 용어		
남조선 당국자	216	176	로태우 일당	209	44
남조선 당국	75	30	괴뢰	204	20
현 '정권'	20	13	파쇼도당	161	78
로태우 '정권'	20	7	남조선 괴뢰	56	60
남조선 '정권'	10	6	남조선 괴뢰도당	55	14
당국	9	37	남조선 군사파쇼당	48	5
당국자	6	7	괴뢰도당	45	30
서울 '정권'	4	·	로태우 파쇼도당	42	4
이남당국	4	·	로태우 괴뢰도당	26	1
남조선 '정부'	4	·	남조선 파쇼도당	22	9
현 로태우 정부	4	·	남조선 통치배	19	35
기타	8	4	로태우 군파쇼도당	14	5
			군사파쇼도당	13	4
			괴뢰당국	11	32
			남조선 괴뢰당국	7	1
			군부독재'정권'	6	·
			남조선 괴뢰정권	4	·
			독재정권	4	4
			민족반역의 무리	4	·
			파쇼정권	4	·
합 계	380 (27.28%)	280 (42.77%)	합 계	1,013 (72.72%)	372 (57.23%)
총 합 계	1989년 9월		1,393		
	1990년 9월		652		

<표 2> 북한 신년사/공동사설(1995~2010)에 나타난 남한정부 지칭 용어표

부 정 용 어		중 립 용 어
이승만 도당	군사파썸분자들	남조선
반동분자들	리승만 김구등의 매국죽	남조선통치자
원썸들	들	남조선 당국자들
피뢰정부	박정희집단	남조선사회
피뢰반동정권	남조선피뢰도당	남조선공화국
침략자들	악당들	남의 고위급들
적들의	반동피뢰정권	전두환정부
매국도당들	군부독재정권	남조선측
역도들이	반동세력들의	남조선의
이승만 역도들	사대매국정권	지도급인사들
그주구들을	분렬정권	남조선의 여당인사들
남조선통치배	파쇼독재정권	로태우정권
군사파썸적 통치배	분열주의자들	남한당국자
군사파썸도당	김영삼일당	남조선정권
피뢰정권	김영삼피뢰정권	북과 남의
박정희도당	반통일 매국세력	지도급인사들
앞잡이들	반통일 분열주의 세력	문민정권
깡패들	사대매국세력	남한당국자
피뢰통치배	추종세력들	북과 남이
남조선피뢰도당	남조선 호전분자들	국민의 정권

한편, 북한의 대 남한 정부(정권)를 지칭하는 용어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문사회분야 장교 15명을 대상으로 중립과 부정으로 분류하는 용어분류조사를 실시하여 총 15명 중 11명(비율적으로 73%) 이상 선택을 받은 57개 단어를 <표 2>를 중심으로

부정·긍정 용어를 중심으로 양분하였다. 용어분류조사 결과는 앞서 신명순의 남한정부 지칭 용어분류와 거의 일치하였다. 정권별로 긍정(가치중립용어)인식과 부정인식으로 나누어 빈도를 합산하고 그 분포의 변화를 인식변화로 보았다. 이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분석으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긍정·부정인식 지수그래프 연결하여 변화 경향을 인식변화로 보았다.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와 실제 남북관계(남북대화, 사건)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북한의 대 남한 인식을 긍정적인 지수(중립용어 사용)와 부정적 지수(부정적인 용어 사용)로 나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긍정·부정적 남북관계로 구분하여 이를 연도별로 지수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긍정적인·부정적인 남북관계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북한문제연구소 2001년도 발행 「남북관계 55년사」를 통하여 1945년부터 2001년까지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는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백서」부록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즉 위의 자료를 긍정적 남북관계, 부정적 남북관계의 빈도를 연도별로 나타내어 이를 남북관계의 긍정적·부정적 지수변화로 보았다. 이때 긍정적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대화와 협상, 부정적 남북관계인 공세적 대남정책의 비중이 사안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협상⁵⁾, 공세적 대남정책⁶⁾의 비중은 고려하지 않았다. 인식변화 그래프를 시대별로 나누어 변화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북관계 그래프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논의를 해보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긍정적·부정적 관계에 있어서도 상태나 정도 비교가 아닌 오직 빈도변화를 지수 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빈도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가설을 설정한 바 있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해 냉전/탈냉전의 인식·관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계수치에 대

5) 긍정관계의 남북대화는 제외수준은 배제하고 직접대면 협상수준 이상.

6) 공세적 대남정책은 위협정도는 배제하고 일방에 피해를 입힌 수준 이상.

한 해석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 남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조류 통일정책변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보았다. 그리고 「신년사」 분석에 의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 55년사, 「통일백서」 분석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화와 사건들이 남북 사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남북관계를 긍정적 남북관계, 부정적 남북관계로 구분(평가)하는 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콧(W. Scott)의 Pi Index 산출 공식을 이용하였다. 이 공식을 통하여 상호신뢰도(Inter coder-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코딩가이드(Coding Guide)를 설정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남북관계는 대화 제의 수준은 배제하고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직접대면 협상수준 이상을 채택하였고 공세적인 남북관계는 위협정도는 배제하고 일방에 피해를 입힌 이상의 수준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코딩가이드(Coding Guide)를 3명의 코드인 공군장교 강성진(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강수민(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기범(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각 긍정관계와 공세적인 대남정책에 점수를 매긴 후에 스콧의 Pi Index 산출공식을 적용하여 Pi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Pi 지수는 0.842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존연구 검토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가 양적 측면에 치중하여 과학적,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경시한 것에 대한 반성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기되었다. 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변적, 연역적 연구보다 과학적, 실증적 연구 방법을 동원한 방법론적 분석의 틀 정립이 시급한데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실증적 연구가 어렵다(김공렬 1990). 또한,

북한연구방향에 있어서는 분단과 전쟁을 둘러싼 논쟁과 성격규명에 치중, 정책 결정자의 인지구조와 지향에 관한 연구가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치자의 정책결정의 인지구조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가 강조된다.

다시 말해 종전의 「북한 신년사」와 관련된 논문들은 주로 북한정책, 공공 관료제, 북한 사회유형과 이데올로기 연구, 북한 정책노선, 행정발전 등 북한내부 행정관련 정책에 관한 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김연주(1998)에 의하면 연대별 북한 언론관련 주요 문헌 목록에 1990년 이후 110편이 발표되었지만 북한 신년사 관련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기존의 북한연구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 인식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간의 관계를, 신년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경우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년사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남한 인식을, 남북관계사를 통해 대남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인식과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시도한 논문은 수적 미미한 실정이다. 남북관계가 시작된 지 60년이 되어 가는 지금 그동안의 남북관계사의 변천과정은 물론 대북 관계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철칙, 밝혀지지 않은 속성, 예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의 공식자료인 신년사를 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연구방법은 기존 북한 신년사 연구의 단순성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질적·실증적 연구가 저조한 것은 분단으로 인하여 경험적 자료에의 접근이 어려워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존해 옴에 따라 북한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에 기인 되었으며,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한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 연구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국가현실정책의 요구에 따라 수행해 왔기 때문에 학문적 욕구를 충족 못했음을 소치형은 밝히고 있다(소치형 외 2002, 13). 한편, 북한 신년사에 대한 연구는 최평

길의 행정과정에 관한 논문(Pyung-gill choi 1975)을 비롯하여, 이은죽도 『북한사회연구』를 통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였다. 김공렬의 북한의 공공관료제에 관한 논문은 김일성 신년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즉, 관료주의 지침 또는 은유들을 찾아내어 언급빈도를 자료별, 시기별로 분석하여 당·국가 관료제의 비중, 관료의 형태, 관료주의의 유형, 관료주의의 통제 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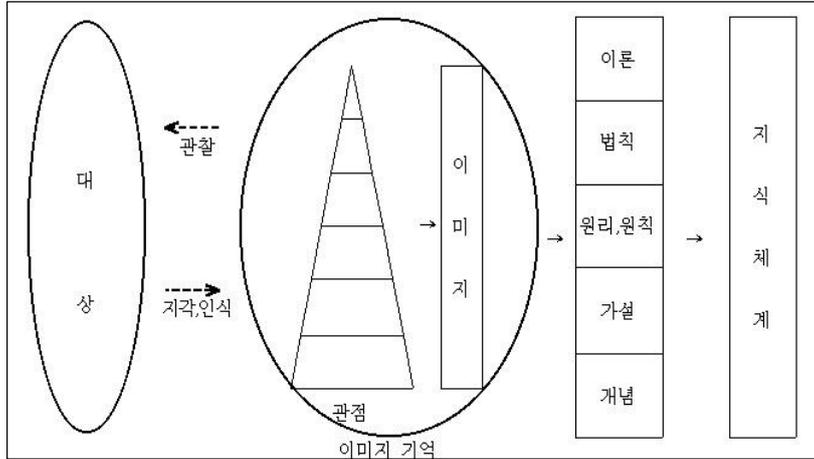
1. 이론적 논의

인식(認識)은 사물에 대한 하나의 영상(映像)이 그려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이며, 이미지의 초기단계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분별하는 순간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인식이 모여 하나의 영상(映像)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인식과 이미지를 명확한 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인한 상(像)이 뚜렷이 맺혀지기 전의 상태가 인식이며,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아래의 <그림 2>에 인간의 인지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특정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면서 관점이 형성되고 형성된 관점을 대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며, 지식체계화가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한편 이미지는 일종의 인식(認識)의 문제(problem of perception)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간에 주어진 자극과 정보를 재구축하는 반응의 결과이다. 이미지란 인간의 심중에 간직된 사물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Kenneth E. Bouding 1956, 97-114). 아울러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편견(bias)에 의해서 복잡정보보다는 단순성(單純性, simplicity), 정확정보보다는 오인

성(誤謬性, errorless), 직접 경험보다는 2차적으로 습득되는 성향,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의 이분법(dichotomy)으로 구분하는 성격을 띤다 (Ithielde Sola Pool 1973, 779-835).

<그림 2> 인간의 인지과정(주창윤 2003, 14)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화된 이미지(stereotyped image)는 현실에 대한 가상적인 이미지일 뿐 결코 현실 그 자체는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편향적인 시각의 고정관념(stereotype)을 가지게 된다.

2. 신년사의 의미

매년 초에 발표되는 「북한 신년사」는 정치행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 신년사는 ‘당과 국가의 수반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시행하는 공식적인 연설’이라고 정의하는 점에서는 어느 국가에서나 흔히 있는 의례적인 신년메시지

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조선말 사전 1992). 그러나 북한 신년사를 통상적인 선전물 정도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북한의 신년사는 최고 권력자의 공식적인 교시이자 한해 동안의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를 직접 밝히고 있으며, 서방세계의 연두기자 회견이나 연두교서와 달리 1회용 연설이 아니라 행정기관·기업소·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책제시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내부단결과 체제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관심사의 공개적인 표명외에도 해외 및 남한의 친북세력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효과마저 있다. 또한, 신년사에는 북한의 대남 인식을 나타내고 대외 선언적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북 정책 수립과 남북 관계 전망을 분석하는 데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북한연구소 1996, 9).

신년사의 기원은 1946년 1월 1일 0시, '평양중' 타종과 함께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책임비서' 자격으로 '신년을 맞으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⁷⁾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부터는 당보(로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청년전위) 등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직접 연설을 대신하여 발표되고 있다. 북한에서 신년사가 발표되는 1월 1일 아침에는 공휴일이라는 의미보다 전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라디오와 TV 앞에서 중계 방송을 시청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신년사가 발표가 된 다음 토론이 직장단위별로 있고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면 심하게 비판받게 된다. 각 시·도 및 단체, 그리고 공장·기업소별로 신년사 관철 결의모임과 쫓기대회를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진행시켜 체제 결속과 새해 목표달성 분위기를 조성하

7) 1946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54년 동안 신년사 35회, 연설문 6회, 축하문 2회, 로동신문 사설 3회, 공동사설 6회를 실시했으며, 1957년과 1987년의 2년은 발표되지 않았다. '57년 신년사가 없었던 것은 '8월 종파사건'이 '56년 8월에 발생했기 때문이고, '87년의 경우는 '86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 시정연설로 신년사를 대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박현욱 2000, 2, 30-31).

는 등 정치행사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의 신년사는 북한 주민의 의식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으므로 이것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에게 강요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3. 분석의 틀(conceptual frame work)

우리나라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 통치를 받았으며,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거의 영구적인 분단으로 고착화되었다. 이처럼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질감 뿐만 아니라 기존 이미지의 왜곡·심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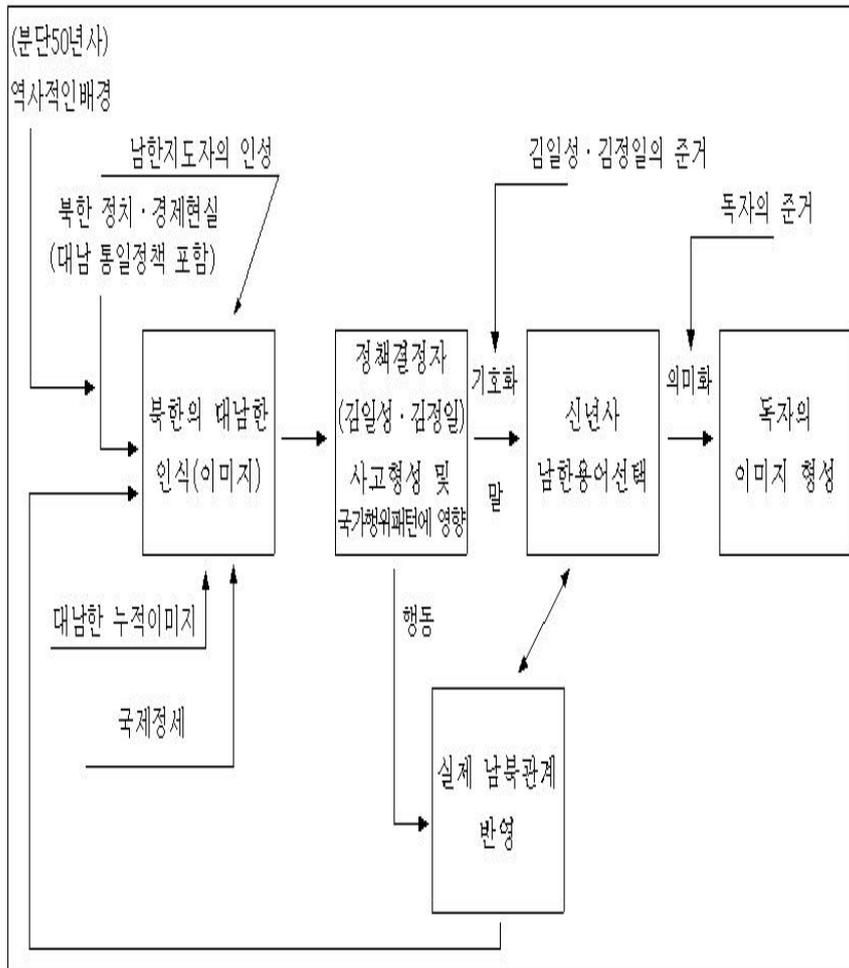
즉 남북한 간에 상이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정책결정자들의 이미지 형성에 주요변수로 작용하였고 상호 적대적 인식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현실(대남통일정책 포함) 남한지도자의 인성, 국제정세변화, 갈등관계에 의한 대남한 누적 이미지 등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북한의 대남한 인식(이미지)은 김일성·김정일의 북한정책결정자의 사고형성 및 국가행위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형성된 북한의 대남한 인식은 기존 북한 정책결정자의 준거를 반영, 기호(sign)화되어 신년사의 남한 지칭용어로 표현되며, 실제 남북관계에도 반영된다. 이것은 다시 독자의 준거에 의해 의미화된 독자의 인식(이미지로)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은 이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인식을 신년사를 통해 상징 조작하고 이를 북한주민들에게 탐독케하여 대남 부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킴

으로써 내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한 인식은 정책결정자의 국가행위에 영향을 미쳐 실제 남북관계에 반영된다.

<그림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對 남한 인식(이미지) 변화과정



이를테면 부정적인 대남한 인식은 공세지향의 대남정책으로 추진되며, 시대변화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인식이 바뀌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결정자의 사고형성과 국가행위패턴은 신년사의 용어선택이라는 『말』과 실제 남북관계반영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어 진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사고가 기호화되어진 북한 신년사의 용어선택과 실제남북관계는 상호관련성을 유지하며 둘 중 어느 한쪽을 분석하면 다른 한쪽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신년사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단하고자 한 것은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남북관계 분석의 어려움, 즉, 분석상의 효율성 여부에 기인한다. 실제 남북관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북한의 대남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공세지향의 대남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이에 대한 당위성 피력, 책임회피·전가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더욱 부정적으로 대남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신년사의 남한정부지칭 부정용어로 표현되어 진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신년사 분석을 통해서 남북관계변화를 설명하는 논리적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시대별로 본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분석

1. 냉전·탈냉전시대 북 대 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

1) 냉전·탈냉전시대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통계분석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는 시대별(냉전·탈냉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 가설은 시대별 대 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로 나뉘고 대남 인식도 긍정·부정으로 대남 관계도 긍정·부정으로 나뉘어져 실제적으로 4개의 연구과제가 생긴다.

<표 3> 냉전·탈냉전시대 인식과 남북한 관계

통계분석	냉전/탈냉전	평균 (집단 통계량)	유의확률
긍정인식	냉전	3.93	.510
	탈냉전	5.60	
부정인식	냉전	2.98	.121
	탈냉전	4.80	
긍정관계	냉전	2.39	.000
	탈냉전	12.50	
부정관계	냉전	.93	.000
	탈냉전	4.10	

(1) 인식의 통계분석

위의 <표 3>에서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즉 대남 인식 측면에서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인식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과제인 “냉전/탈냉전시대의 부정인식은 차이를 보이는가?”에서 H_0 : 차이가 없다는 명제이고, H_a : 차이가 있다는 명제이다. 위의 통계표값 <표 3>을 보면 $P=0.121 > 0.05$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냉전/탈냉전시대의 부정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과제인 “냉전/탈냉전시 긍정인식은 차이를 보이는가?”에서도 $P=0.510 > 0.05$ 귀무가설이 채택, 냉전/탈냉전시대 긍정인식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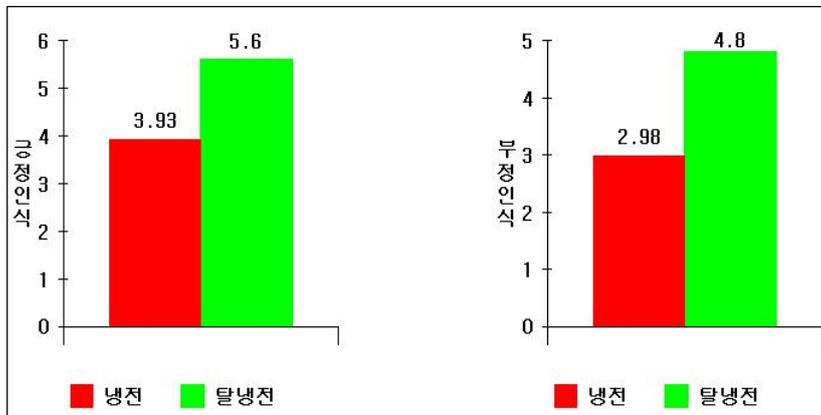
(2) 남북관계의 통계분석

분산분석결과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남북한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t=-3.380$, $p=.008$)와 긍정적인 관계($t=-3.799$, $p=.004$)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탈냉전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관계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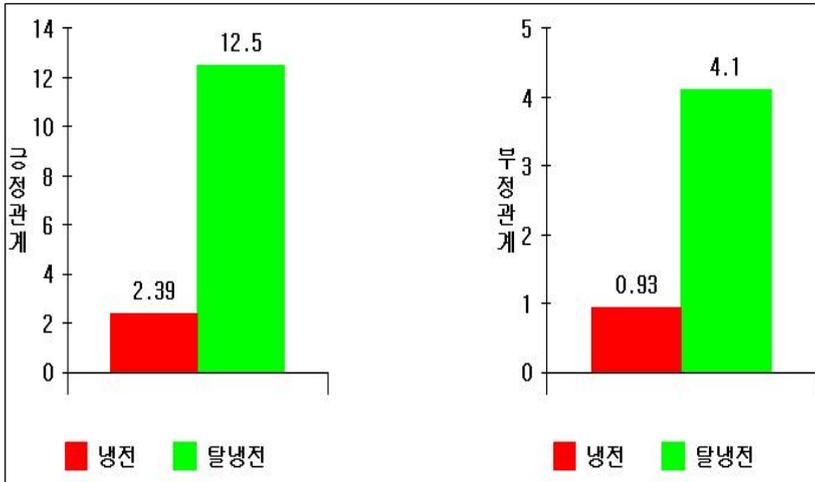
세 번째 “냉전/탈냉전시대의 부정관계는 위의 <표 3>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가에서 H_0 : 차이가 없다는 명제이고, H_a : 차이가 있다는 명제이다. $P=0.000 < 0.05$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냉전/탈냉전시대의 부정관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냉전시대 부정사건 0.93, 탈냉전시대 4.1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부정사건이 탈냉전시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결과는 탈냉전시대가 냉전시대보다 부정적인 사건의 빈도가 높았다.

네 번째 “냉전/탈냉전시대의 긍정관계는 차이를 보이는가?”에서 $P=0.000 < 0.05$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냉전/탈냉전시대의 긍정관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냉전시대 긍정관계 평균지수가 2.39, 탈냉전시대 긍정관계 평균지수가 12.50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냉전/탈냉전시대 긍정·부정 인식



<그림 5> 냉전/탈냉전시대 긍정·부정 관계



(3) 종합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변화를 종합하면, 탈냉전 이후 인식 측면에서는 냉전시대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관계 모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수 상으로 살펴볼 때 냉전시대 부정인식지수(2.98)에 비해 탈냉전시대 부정인식지수(4.8)가 증가되었고, 냉전시대 긍정인식지수(3.93)가 탈냉전시대 긍정인식지수(5.6) 정도로 비슷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냉전시대 부정관계지수(0.93)에 비해 탈냉전시대 부정관계지수(4.1)가 크게 증가되었고 냉전시대 긍정관계지수(2.93)에 비해 탈냉전시대 긍정관계지수(12.5)가 월등히 많이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탈냉전시대에는 냉전시대와 비교하여 인식적인 측면에는 커다란 변화(차이)가 없으며 긍정관계도 많이 일으키면서 부정관계도 이에 상응하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시대는 인식적인 측면의 변화보다는 실제 남북관계 변화와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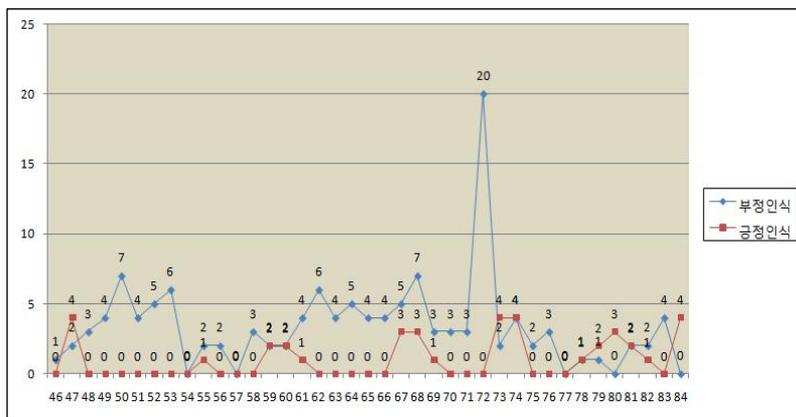
1) 냉전 · 탈냉전시대 인식과 남북한관계

(1) 냉전시대 · 탈냉전시대 대 남한 인식

① 냉전시대 대 남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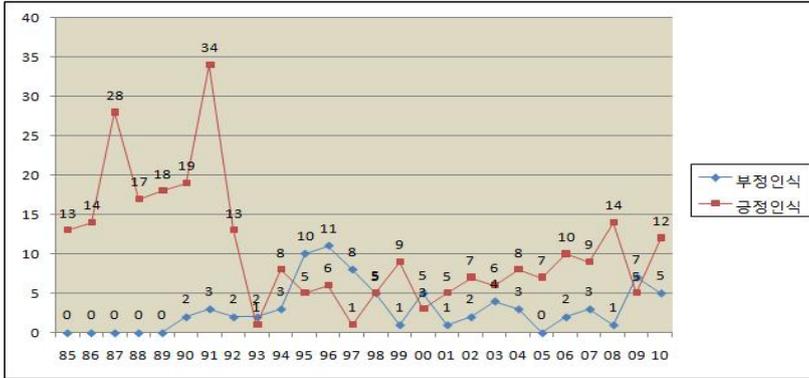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후 미·소의 패권 싸움에 의해서 냉전 이데올로기가 생겨났으므로 양국 간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미·소에 의한 냉전 이데올로기는 1956년 중국·소련의 갈등을 시작으로 미국·중국친교, 미·일의 안보조약 등의 다변화 양상을 보였다. 아래의 <그림 6>에 나타난 지수 변화를 살펴보는 바와 같이 냉전시대의 긍정지수는 평균적으로 0~4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냉전시대의 부정적인 지수는 1980년대 초반까지 평균적으로 4에서 9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냉전시대에는 긍정지수보다는 부정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수상의 변화만을 살펴보아도 냉전시대는 긍정적 지수보다는 부정적 지수변화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냉전시대 대 남한 인식 변화



다시 말해 김일성 신년사에서 대 남한 지칭용어 사용에 있어 냉전 시대에는 긍정적(중립적) 용어 사용보다는 부정적인 용어 사용이 더 빈번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탈냉전시대 대 남한 인식 변화



② 탈냉전시대의 대 남한 인식

탈냉전시대의 대 남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림 7>과 같다. 1987년부터 긍정적 인식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 인식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로 급진화된 개방·개혁의 물결로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자, 북한은 몹시 당황했거나 그 여파가 얼마나 심하게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으로 상대(남한정부)에 대한 용어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남한 정부지침이 부정 용어사용보다는 국제적인 탈냉전의 화해무드에 영향을 받아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몰락은 대 남한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국제사회의 해빙무드에 의해 상대를 인정하는 용어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후반의 긍정적 인식의 그래프가 매우 현저하게 상승 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1980년대 후반과 대조적으로 하향국면을 나타내고 오히려 부정인식은 1980년대 후반에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상승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의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붕괴가 탈냉전시대의 전환기적인 현상을 나타내었다며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분명히 탈냉전시대 초기 지수변화와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인 단계에 돌입했음을 느끼게 해준다.

지수의 변화는 격변기(=과도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긍정인식지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0년에 와서는 긍정인식 지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98년 이후부터 긍정인식 지수가 99년(9), '00년(5), '01년(5), '02년(7),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는 '04년(8), '05년(7), '06년(10)에서 '09년(5)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증가 추세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00년(3)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다가 '09년에 들어서 부정적인 인식지수가 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드는 경향은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한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햇볕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유화 정책을 추진한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해 온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 남한 인식에 있어 냉전에 비해 긍정인식 > 부정인식의 탈냉전시대임에도 정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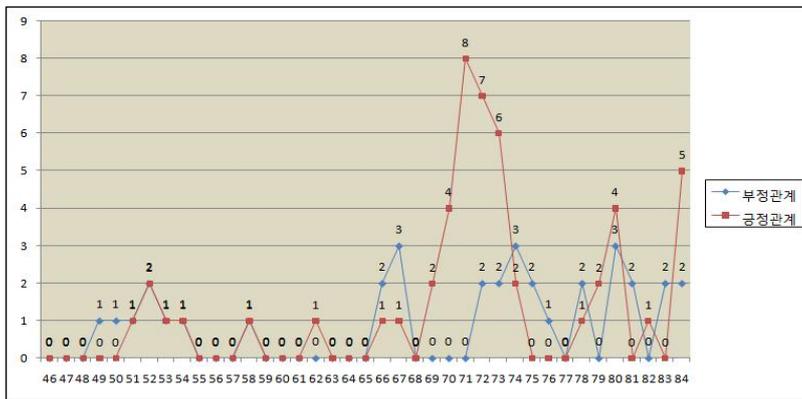
용정책과 차별화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 남한 정부지침에 있어서 부정적 용어 사용빈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냉전시대 · 탈냉전시대 대 남북한 관계

① 냉전시대 남북한 관계

냉전시대의 남북관계 지수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냉전의 시작부터 다변화 시기까지는 잠정 국면으로 긍정적, 부정적 관계 지수가 소폭의 변화 왜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1970년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긍정적인 남북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1970년 후반에 들어서는 일정기간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탈냉전(1987년 시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1984~1986년)부터 긍정적인 관계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냉전시대 남북한 관계 변화



한편, 위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전시대 부정적인 남북 관계지수가 1960년대까지는 커다란 변화 없이 소강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부터 오히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대화와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다른 이면으로는 대남도발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한쪽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다른 한쪽으로는 공세적인 자세로 위협하고 있음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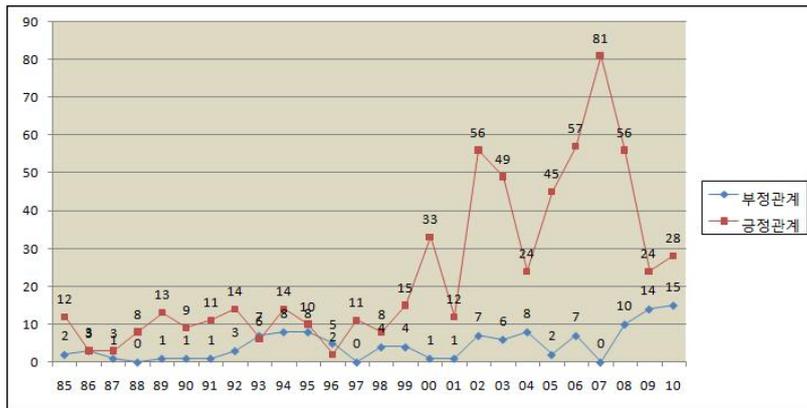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관계지수가 아무리 큰 폭으로 증가해도 단 1건이라도 결정적인 부정적 사건이 발생된다면 긍정적인 남북관계에 의한 화해·대화의 무드가 반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관계추세의 변화와 부정적인 관계추세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관계지수 변화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 간에 해빙무드 조성으로 긍정관계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남 사업을 특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1960년대의 북한통일정책으로 무력적화통일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민주기지론’이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외관상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으나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탈냉전시대 남북한 관계

탈냉전시대를 구분하는 1987년 이후 남북관계 지수변화를 아래 <그림 9>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인 관계지수 변화가 매우 두드러지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김일성 사후인 1994년-96년 하향곡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남북관계가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개방·개혁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 증가되었으나 김일성 사망 후 남한정부가 조문단 파견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1995년 신년사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그 분노의 감정적인 표현의 일환으로 상
 승국면의 남북 간의 긍정관계가 탄력을 잃고 하강했음을 알 수 있다.
 '96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04년(24), '05년(45), '06년(57)
 '07년(81))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냉전체제때와 매우 대
 조적으로 긍정관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
 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 '08년부터 (56), '09년(24), '10년(28)으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시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긍정관계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9> 탈냉전시대 남북한 관계 변화



북한과 같이 철저하게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지도자 개인의 파워가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 권력'을 지향하
 고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일 등장 이후에는 개인적 성향과 북한 내부
 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인 관계가 소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부정적인 관계
 지수 변화는 탈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는(1987~92)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김일성 사후1994년-1996년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시기 1997년 이후에는
 부정관계가 '98년(4), '02년(7), '03년(6), '04년(8) '08년(10), '09년(14),

'10년(15)까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은 바로 햇볕정책과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북한이 부정적인 사건을 저질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탈냉전시대의 남북관계 지수변화는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기류에 편승,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그 위력이 대단하지는 않은 반면, 김일성의 사망이나 김정일의 등장과 같은 북한 내부 상황변화에 남북관계지수 변화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탈냉전시대에도 긍정관계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관계도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관계의 지수가 아무리 높은 수치를 갱신하더라도 부정관계 단 1한건이 갖는 과장이 훨씬 더 큰 것을 고려할 때 부정관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우려와 함께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시작했던 햇볕정책추진 와중에도 북한의 부정적인 관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이를 계승하여 유화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때에 와서도 북한의 대남도발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통해 북한이 대남한에 자생하는 대남도발은 시대변화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북한의 이중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는 수치 면에 있어서 확연하게 부정관계의 수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IV. 냉전·탈냉전 시대 대남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상관성

1. 냉전시대의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상관관계

냉전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 변화와 남북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냉전시대의 긍정인식과 긍정적인 남북관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4>에 의해 양적인 선형관계(.617)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P=0.000<0.05$). 하지만 냉전시대 부정인식과 부정적인 남북관계와의 상관관계는 <표 4>에 의해 약한 상관관계(0.114)를 가지고 있다. 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P=0.485>0.05$)

또한, 냉전시대 긍정인식·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위의 <표 4>에 의해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0.44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결과 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0.004 < 0.05). 부정인식·긍정관계의 상관관계는 <표 4>에 의해 양의 상관관계(0.093)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도는 매우 경미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긍정·부정 인식과 부정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냉전시대에는 긍정·부정인식이 커지면 부정관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관계가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냉전시대는 미·소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국제사회는 갈등과 반목의 시기였고 남북한의 탄생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기류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석의 결과처럼 냉전시대에는 어떠한 인식이 형성되었는가는 무의미하게 부정관계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냉전시대 인식 vs 관계(1946~1985)의 상관관계

인식 \ 관계	긍정관계	부정관계
긍정인식	0.617 (0.00)	0.444 (0.004)
부정인식	0.093 (0.563)	0.114 (0.485)

값 : Pearson 상관계수, () 안은 유의확률

2. 탈냉전시대의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상관관계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탈냉전시대에 긍정인식과 긍정적인 남북관계의 상관관계는 <표 5>에 의하면 음적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도는 뚜렷(-0.34)하다. 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P=0.168 > 0.05$). 반면 탈냉전시대 부정인식이 높을수록 부정관계도 <표 5>에 의하면 양적인 선형관계(0.303)를 나타낸다(0.303). 하지만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0.222 > 0.05$).

<표 5> 탈냉전시대 인식 vs 관계(1986~2010)의 상관관계

인식 \ 관계	긍 정 관 계	부 정 관 계
긍 정 인 식	-0.340 (0.168)	-0.581 (0.014)
부 정 인 식	-0.073 (0.781)	0.303 (0.222)

값 : Pearson 상관계수, () 안은 유의확률

또한, 탈냉전시대 긍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표 5>에 의하면 매우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0.581)를 나타내며(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0.014 < 0.05$) 탈냉전시대 부정인식과 긍정관계도 <표 5>에 의해 매우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0.073)를 나타낸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0.781 > 0.05$). 여기에서도 긍정·부정인식과 부정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탈냉전시대는 긍정인식이 커지면 부정관계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인식이 커지면 부정관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전시대/탈냉전시대를 종합하여 살펴보기 전에 인식과 관계의 연평균지수를 보면(<그림 4>, <그림 5> 참조) 긍정인식(냉전 3.93 → 탈냉전 5.6), 부정인식(냉전 2.98 → 탈냉전 4.8), 긍정관계(냉전 2.39 → 탈냉전 12.5), 부정관계(냉전 0.93 → 탈냉전 4.1) 모든 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냉전시대는 긍정인식·긍정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인식과 부정관계 모두 냉전시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북한이 탈냉전시대에 대 남한 정부에 대해 긍정인식·긍정관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남 공세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긍정인식·긍정관계의 상관관계도 냉전시대에는 긍정인식이 증가하면 긍정관계도 늘어난 반면, 탈냉전시대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부정인식·부정관계는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공히 부정인식이 증가하면 부정관계가 늘어나는데 탈냉전 시대에 증가폭(냉전 0.114 → 탈냉전 0.303)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탈냉전시기에는 냉전보다 부정관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냉전 0.93 → 탈냉전 4.1) 크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어 갈수록 부정인식은 물론 부정관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 → 김정일로 교체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또한, 긍정인식·부정관계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냉전시대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0.444)를 나타내고 있으나 <표 5>에 의해 탈냉전시대에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0.581)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냉전시대에는 긍정인식이 증가하면 부정관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탈냉전시대에는 부정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시대별 대남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북한의 대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는 시대별(냉전/탈냉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따른 4개의 연구 과제를 통

계분석 결과를 통해 검정해 보았다.

T-검정을 통한 통계분석 결과 긍정·부정인식은 냉전/탈냉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부정관계는 냉전/탈냉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관계의 상관관계 분석은 긍정·부정 인식변화와 부정관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정인식·부정관계는 냉전/탈냉전 공히 부정인식이 증가하면 부정관계가 늘어났는데, 탈냉전시대에 증가폭이 컸다(냉전 0.114 → 탈냉전 0.303). 긍정인식·부정관계는 냉전시대는 양의 상관관계(0.404) 탈냉전시대는 음의 상관관계(-0.581)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탈냉전시대가 냉전시대보다 부정적인 관계가 증가했으며, 냉전시대 북한의 대남행위는 언행이 불일치한 반면, 탈냉전시대는 언행이 일치한 것으로 나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냉전시대보다는 탈냉전시대에 긍정·부정인식, 긍정·부정관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의 미·소에 의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 때문에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긍정인식·긍정관계뿐만 아니라 부정관계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V. 결 론

이 논문은 신년사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로 매년 발표되는 신년사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변화추이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신년사분석을 통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대남한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탈냉전으로 전환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대 남한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관계가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냉전시대>는 미·소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국제사회는 갈등과

반목의 시기였고 남북한의 탄생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기류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석의 결과처럼 냉전시대에는 어떠한 인식(긍정/부정)이 형성되었는가와 무관하게 부정관계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냉전시대에는 긍정인식이 커지면 부정관계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인식이 커지면 부정관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냉전시대에는 긍정인식·긍정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인식과 부정관계 모두 냉전시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것이 특색이다. 탈냉전시대에 대 남한 정부에 대해 긍정인식·긍정관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남 공세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긍정인식·긍정관계의 상관관계도 냉전시대에는 긍정인식이 증가하면 긍정관계도 늘어난 반면, 탈냉전시대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부정인식·부정관계는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 공히 부정인식이 증가하면 부정관계가 늘어나는데 탈냉전시대에 증가폭(냉전 0.114 → 탈냉전 0.303)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탈냉전시기에는 냉전보다 부정관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냉전 0.93 → 탈냉전 4.1)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 → 김정일로 교체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대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는 시대별(냉전/탈냉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따른 4개의 연구 과제를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T-검정을 통한 통계분석 결과 긍정·부정인식은 냉전/탈냉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부정관계는 냉전/탈냉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관계의 상관관계 분석은 긍정·부정 인식변화와 부정관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정인식·부정관계는 냉전/탈냉전 공히 부정인식이 증가하면 부정관계가 늘어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냉전시대보다는 탈냉전시대에 긍정·부정인식, 긍정·부정관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인식

과 긍정관계가 증가한것은 한반도 분단의 미·소에 의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 때문에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결과라 생각된다. 다만 긍정인식·긍정관계뿐만 아니라 부정관계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즉 국제사회적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탈냉전시대임에도 부정관계가 증가한 것은 긍정인식과 긍정관계 증가되면 부정관계는 줄어든 것이라는 일반적이면서 상식적인 학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말해 그들의 평화를 외치는 구호와와는 별개로 대남 적화통일의 의지가 엄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피폭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북한이 신년사(공동사설)에서 대남한 지칭용어를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나 평화의 구호를 외칠 때마다 긍정관계도 증가하겠지마는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에 의해 대남도발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 국방대학교 편, 2010, 『2011년도 안보정세 전망』,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국방부, 1999, 『국방백서』, 서울 : 대중사.
- 김공렬, 1990, “북한의 공공관료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연주, 1998, 『현대 북한 언론연구』,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 동아일보사(편), 2001, 『현대 시사용어 사전』, 서울 : 동아일보사.
- 민병천 외, 2001, 『북한학 입문』, 서울 : 들녘
- 북한문제연구소(편), 2001, 『남북관계 55년사』, 서울 : 북한문제연구소.
- 북한연구소(편), 1996, 『북한 신년사 분석』, 서울 : 북한연구소
- 서대숙, 2002,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울 : 경남대학교.
- _____, 2001, 『한국과 러시아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소치형 외, 2002, 『북한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송종환, 2002,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서울 : 오름.
- 신명순 외, 1992, 『남북한 통합론』, 서울 : 인간사랑.
- 신평길, 1997, 『김정일과 대남공작』, 서울 : 북한연구소.
- 안보문제연구소, 2011, 『통일로』, 서울 : 안보문제연구소
- 육군사관학교(편), 2003, 『북한학』, 서울 : 박영사.
- 이온죽, 1989,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분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8, No.1

- 이종석, 2000,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 이태건·권장희·이범웅·오기성, 2003, 『21세기 북한학 특강』, 서울 : 인간사랑.
- 장명순, 1999, 『북한군사연구』, 서울 : 팔복원.
- 장성민, 2009, 『전쟁과 평화』, 서울 : 김영사.
- 전인영, 2001,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 극동문제연구소(편) 제 19차 통일전략포럼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정석홍, 1997, 『남북한비교론』, 서울 : 사랑과 사람.
- 제성호, 2001, “북한의 통일관과 평화관의 분석 및 전망”, 국방대학교 제13차 안보학술회의 (서울: 국방대학교)
- 조민, 2008,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조선말 사전, 1992, 평양.
- 좋은벗들, 2001,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는가』, 서울 : 정토출판.
- 주창윤, 2003, 『영상 이미지의 구조』, 서울 : 나남.
- 척 다운스 저, 송승중 옮김, 1999,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 한울아카데미.
- 통일교육원(편), 2000, 『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
- Budd, W. Richard, Theory, K. Robert, Lewis, 1987, *Content Analysis of Communication, 3dr, rev.* N. Y : Macmillan Co.
- Choi, Pyung-gill, 1975, “*The Nation-building Process and Administrative Development in North Korea*” Ph. 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Erickson, John, 1999, “*Russia Must Not be Trifled With* :

Geopolitical Facts and Fantasi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22, No.2.

Flanagan, J. Stephen, and A. Schear, 2007, *Strategic Challenges :
America’s Gloval Security Agenda*, Washington, DC NDU Press.

Ithielde, Sola Pool(ed.), 1973, *Handbook of Communication*, New
York : Rand McNally.

Kenneth, E. Bouding, 1956, “The Image :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e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2004,
Report of the National Inte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Analysi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North Korean Perception of South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and Post Cold War Eras

Lee, June-hee
(Research Institute of Global Education & Culture)

Abstract

The aim of this report is to establish through the analysis of New Year speeches the possibility of further change in North Korea by looking at how much change there has b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during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after the Post Cold War era and how much change there has been in the North Korea perspective of South Korea as the Cold War era turned into the Post Cold War era.

By piecing together the research results, it is apparent that a negative relationship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at this is irrelevant to any change (positive or negative) in recognition.

Irrelevant to any development of recognition(positive/negative) negative relationship is taking place.

It is also apparent that during the Post Cold War era there was an inverse association between a negative relationship and positive recognition with changes in one being correlated with opposite changes in the other.

Compared with the Cold War area, an especially distinctive

feature of the Post Cold War era was that not only did positive recognit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grow, but also negative recognition and negative relationship considerably increased

This shows that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tried to adopt an offensive doctrine towards South Korea while they were building a positive recognition an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n the Cold war era, the positive relationship grew as the positive recognition increased, but during the Post Cold War era it decreased,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negative recognition/negative relationship was such that, if recognition increased, then this was followed by an increase of the other, and the gap between them widened (the Cold war 0.114 --> the Post Cold war 0.303).

During the cold war era, positive recognit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were linked. It was thought that during the post cold War era the negative relationship would be less than during the Cold war era, but, contrary to common sense, it has actually greatly increased (the Cold war 0.93 --> the Post war era 4.1).

These findings appear to demonstrate the duplicity of North Korea.” Attach this sentence to the end of the previous paragraph. Start a new paragraph as follows;

“Our research project wa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the Cold War and post Cold War eras in North Korea’s recognition of South Korea and th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analysis of our data showed that,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in positive and negative recognition between the Cold War and the post Cold War eras, there was a difference in positive/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eras.

Interrelationship analysis of recognition and relationship was performed, focusing on positive/negative recognition change and negative relationship. In both the Cold War and Post Cold War eras, an increase in negative recognition was followed by an increase in negative relationship. Overall, positive /negative recognition and positive/negative relationship have increased over the Post Cold War era compared with the Cold War era.

Keywords : the Cold war , the Post -Cold war
Positive recognition , negative recognition,
Positive relationship, negative relationship